

오도창 영양군수가 해냈다... 정치인생 최대 업적 양수발전소 유치

관련기사 2.3면



두대살골 영양군에 새봄을 알리는 '희망재'가 지저귄다.
새터널 여명의 시간에 막 잡에서 깨어나는 새들이 지저귀는 맑은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짝이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분명 영양의 새해는 서광이다.
지금 영양은 축제분위이다.
고을 사람들 모두 뛰쳐나와 덩실 덩실 춤을 추며 다가올 희망 영양의 미래에 부풀어 있다.
양수발전소 유치라는 꿈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오도창 영양군수의 정치인생 최대 업적은 바로 영양 땅에 양수발전소 건설이다.
그래서 오 군수는 새로운 영양 새희망의 영양 풍요가 넘실대는 부흥의 땅을 건설한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영양의 백년초석을 다지는 거대한 청사진이 눈앞에 펼쳐진다.

새천년 새영천

비상하는 영천! 새로운 도약!



영천시
Yeongcheon City



오도창, 양수발전유치 척박한 땅에서 풍요의 땅으로

양수발전소 영양 건설 인구소멸 위기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 자신감 새로운 영양시대 여는 중요한 계기 마련했다 지역발전 지원금936억 주민 복리사업 재투자

영양은 두메사골이다. 전국 자치단체 중 인구가 꼴찌에서 두 번째 작은 군이다.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조그만시골 지자체다. 영양에 변변한 도로 하나 없다. 그런 영양에 희망이 넘실댄다. 양수발전소 유치로 군민들이 잘사는 고을이 된다는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있다. 위대한 영양군민들의 승리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양수발전소가 영양에 건설되면서 인구소멸 위기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오 군수는 “이번 양수발전소 유치로 얻어낸 것은 양수발전소와 부가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영양군의 가능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가능성은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과거의 경험을 발판 삼아 현재와 지속 가능한 미래를 그

려나갈 것이다. 앞으로의 여정에 영양군민이 힘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오 군수는 “이번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대상지 선정으로 ‘새로운 영양시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땀땀 뚫어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영양군민들, 특히 일월면 용화리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 척박한 땅에서 풍요의 땅으로

영양 척박한 땅에 새순이 돋았다. 영양군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노력으로 장기간에 걸쳐 계획하며 준비해 왔던 대규모 국책사업인 양수발전소 유치에 성공했다.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다시금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영양군은 사망자 수 281명, 출생자 수 29명으로 출생이 사망의 10%도 못미쳤다. 인구 붕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었다. 지난해 심리적 인구의 마지노선인 1만 6000명의 선이 무너졌다. 지자체의 존립에 대한 큰 우려가 가시화됐다. 인구감소는 농촌 일손부족, 어르신 부양 부담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다. 경기 침체, 일자리 감소, 출산율 저하의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라는 도전에 뛰어 들었다.

간절히 바라고 절실히 외쳤던 지난 9개월 간의 양수발전소 유치 전투에서 승리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서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대상지’로 영양군이 선정되자 ‘영양전사들’은 10부 능선에 희망 영양이라는 깃발을 꽂았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해 4월 말 영양군을 신규 양수발전소 후보지로 선정했다. 영양군민 모두 땀땀땀 싸움터로 댔다. 결의에 찬 눈빛은 태양을 집어 삼킬 듯 예뻐 보였다. 갑옷과 투구로 중무장 한 영양 전사들은 결의대회라는 붉은피를 이마에 도여냈다. 생즉사 사즉생(生則死 死則生) 각오로 전투에 임했다. 범군민 서명운동은 활화산처럼 타올랐다. 서명률 86.47%였다. 주민 여론조사 찬성률 96.9%를 통해 양수발전소 유치에 대한 군민의 의지를 보여줬다. 1만 명의 인구가 집결하는 기적 같은 모습을 보인 총 결의대회까지, 전 군민이 양수발전소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끝내 영양군은 양수발전소를 유치했다.

■ 생산유발 효과는 1조 원

영양군이 유치한 신규 양수발전소의 생산유발 효과는 1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 군수는 영양군이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이유로 전체 86%인 산지 지형, 300m 이상 적정 낙차, 입지 제한이 없는 환경 적정성, 국내 마지

막 남은 대용량 발전 가능한 넓은 하부지 면적, 최고의 주민수용성 등을 들었다. 영양 양수발전소는 국내 최대 규모(원전 1개소)인 1GW이다. 2024년부터 2035년까지 약 2조 1000억 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한다. 영양군 일월면 용화리 일원에 상·하부 저수지 및 발전설비, 이주단지 등을 조성한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사업비는 약 3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영양군은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맞춰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비롯한 기본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높인다. 수물 예정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로 각종 지원사업 추진에도 힘쓴다. 양수발전소 최종 후보지 선정의 결정적인 이유는 전국 최대규모인 최적의 입지 조건과 최고의 주민수용성에 대한 산자부의 객관적 평가 결과다. 양수발전소 유치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영양군에 신규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 및 운영기간 동안 다양한 파급효과와 양수발전소를 연계한 개발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는 신호탄을 쏘아올린 셈이다. 초기 건립에 들어가는 인력 수요를 통해 150여 명의 정규일자리, 순수 1조 6000억원 규모의 건설비가 투입된다.

지역 중장비, 숙박시설, 식당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건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14억 원의 지방 세수를 확보,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확충 목표하고 있다. 각종 지역 발전 지원금(936억 원)이 주민복리사업에 재투자된다. 정주여건이 개선되면서 발전소 홍보관을 넘어 발전소 시설과 연계된다. 저수지 일대 산정호수 펜션과 카페 등을 조성, 지역민의 휴식 공간과 방문객의 관광 랜드마크로 발돋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차질 없이 양수발전소의 건립을 준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한수원의 양수발전소에 대한 노하우가 더해져 애초 일정보다 2년을 앞당겨 조기 준공을 계획하고 있다. 영양군은 양수발전소 사업대상지에 선정, 건립의 전 과정은 확정된 총 6개 지역이 동일하게 진행된다. 준공시점의 차이만 있을 뿐 양수발전소가 건립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로써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은 올해 진행될 예비타당성 조사만 남겨 놓게 됐다. 앞서 산자부는 예비 후보지로 영양군(1GW), 봉화군(0.5GW), 곡성군(0.5GW), 금산군(0.5GW)을 우선 후보지로 합천군(0.9GW), 전남 구례군(0.5GW)을 선정했다. 6개 지자체 모두 사업자에 선정돼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된다. 김성용·권은동 기자

영양 9경 여가행

9가지의 즐거움

영천시

| | | | |
|--------------|----------------|--------------|------------|
| 은해사 | 일고서원 | 보현산천문대 | 치산관광지 |
| 보현산댐짚와이어 |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 영천댐벚꽃배리길 | 영천한마마을 |
| | 숨마치점 | | 도화원길 |
| | | | 별별미술마을 |



한수원, 영양에 2조 투입 양수발전기 4기 짓는다

한수원, 양수발전 친환경관광 전력계통 등 세마리 토끼잡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수발전소 위치 지역우수인재육성 기숙사마련 '영어마을 연수' '장학사업' 등 교육지원 정책 전격 시행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양수발전으로 친환경관광, 전력계통 안정화 등 세 마리 토끼를 잡는다. 정부의 양수발전 신설 사업에 참여해 40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선보인다.

■ 한수원, 신규 양수발전사업 박차

16일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등에 따르면 최근 한수원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긴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에 우선사업자로 선정됐다. 한수원은 합천군에 225메가와트(MW) 양수발전기 4기를 2034년 12월 준공한다. 설비용량은 900MW이며 예상사업비는 약 1.8조원이다. 영양군에는 2조원을 들여 250MW급 양수발전기 4기를 짓는다. 영양 양수발전 사업은 예비사업자로 우선사업자와 함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다. 이미 한수원은 전국 3곳에서 양수발전소를

건설 중이다.

충북 영동에는 250MW급 2기가 2030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영동 양수발전은 지난해 5월 이설도로 공사를 착공했으며 11월 실시계획을 신청했다. 올해 3월에는 주설비공사 입찰공고를 앞두고 있다.

강원 홍천에는 300MW급 2기가 2032년 12월 완공, 경기 포천에는 350MW급 2기가 2034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홍천과 포천 양수발전은 지난해 9월 예정구역 지정에 마치고 이설도로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예상 사업비는 영동 1.2조원, 홍천 1.6조원, 포천 1.5조원이다.

■ '친환경 ESS' 양수발전-일석다(多)조

양수발전은 일석다(多)조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양수발전소는 전력수요가 적은 야간이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의 남은 전기를 이용해 하루 밤에 있던 물을 상부 댐으로 끌어올린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간에는 상부 댐의 물을 떨어뜨려 전력을 생산한다. 양수발전은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전력계통 불안정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전기는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잘 맞기 위해 일정한 주파수가 유지되어야 한다.

한국은 주파수가 60헤르츠(Hz) 수준으로 유지, 각종 산업에 질 좋은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발전량이 과하면 주파수가 불안정해져 악영향을 주지만 양수발전이 이를 완화해주는 것이다.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증하는 경우 양수발전소가 남은 전력을 하부 댐에 있던 물을 끌어올리는데 사용하고 발전량이 줄어들면 전력을 생산해 '자연 ESS'(에너지 저장장치) 역할을 한다.

최근 주간시간 상부로 물을 끌어올리는 횟수는 2016년 433회에서 2022년 1992회로 약 4.2배 증가했다.

전국 발전량이 증가하면서 장시간 안정적 출력이 가능한 대용량 ESS로 쓰이는 셈이다. 지난해 태양광 발전량이 급증한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기간'에는 신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비상운영을 시행했다.

주파수 유지, 송전혼잡 완화, 하향예비력 확보 등을 위해 양수발전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발전량이 급감하는 경우에도 양수발전 진가가 발휘된다. 원자력이나 화력 등 대용량 발전기가 갑자기 정지됐을 때 양수발전소가 빠른 시간 내에 발전 출력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발전이나 화력 등 대형 발전소가 최대 출력을 내기까지 수 시간에서 수십 시간이 걸리지만 양수발전은 단 3분이면 충분

하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인 블랙아웃 위기가 있었던 2011년 9월 15일 전력수요 급증으로 순환정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양수발전소는 상부댐에 저장돼 있던 물을 떨어뜨리며 즉각 전기를 생산했다.

한수원이 관리 중인 원전이 설비 고장 등으로 정지되는 경우에도 양수발전을 신속히 가동해 주파수 안정에 기여할 바 있다.

한수원은 경주 지진이나 울진·삼척 대형산불 등 재난 상황에서 원전 출력이 변동되자 양수발전으로 대응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대용량 발전소들이 정지하면 이를 가동하기 위해 전기가 필요한데 양수발전이 전기를 생산해 일종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수발전소는 관광명소로도 꼽힌다. 한수원은 양수발전에 홍보관을 마련해 댐 저수지와 어우러진 숲 등 자연경관을 소개하고 수력 발전 원리 등을 직접 소개하는 장으로 활용 중이다.

지자체들은 양수발전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이나 시설을 마련하는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신규 양수발전 사업이 진행될 지역들도 관광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수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에는 지역우수인재 육성, 기숙사 마련, 영어마을 연수, 우수교사 유치 및 장학사업 등 교육 지원 정책 등도 시행된다.

■ 정부, 양수발전사업 지원

정부는 양수발전을 주목하고 있다. 전력 당국은 양수발전 필요물량을 1.75GW에서 20% 내외로 추산했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거해 한수원을 포함한 신규 양수발전 사업 2곳을 선정했으며 4개 사업도 예비로 선정해 추진한다.

우선사업자와 예비사업자는 모두 공공기관 운영법에 규정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다.

우선사업자는 2035년 3월 내 준공을 목표로 건설에 착수하고 예비사업자 물량은 공기업 보유 석탄의 양수 대체 등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 2035년부터 2038년까지 순차 준공을 추진한다.

양수발전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적용한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프로젝트에도 포함됐다. 한수원은 지난해까지 2년간 녹색채권 시범사업에 참여해 총 3900억원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한수원은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한 '2023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녹색채권 발행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 녹색사업의 우수성 뿐만 아니라 회사의 탄소중립 경영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녹색금융 확대를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은 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북에서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잡다!

혁신의 에너지 ENERGY 성장의 시너지 SYNERGY

| 경북의 미래 신산업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 단지명 | 소재지 | 주요 입주업종 | 산업시설용지 분양면적 / 분양가격 | 분양문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항 블루밸리국가산단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구미 국가4.환경·하이테크밸리국가산단 강소연구개발특구 안동 경북바이오일산단 산업용 펌프 규제자유특구 경주 원자력연구단지 원자력 혁신기술개발·선도 혁신 |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 |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장기면, 구룡포읍 일원 | 자동차부품, 선박부품, 기계부품, 철강부품, 에너지/IT, 화학 등(※ 임대전용 50만㎡) | 3,604천㎡ / 203천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053-603-2585 |
| |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 포항시 북구 곡강리, 용한리 일원 | 1차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철강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등 | 1,295천㎡ / 257천원/㎡ | 포항시청 054-270-2823, 3813 |
| | 상주 일반산업단지 | 상주시 현신동 일원 | 금속가공, 전기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기계 및 장비, 식료품 등 | 238천㎡ / 112천원/㎡ | 상주시청 054-537-7411 |
| | 경산4 일반산업단지 | 경산시 진량읍 신제리, 다문리 일원 | 정밀기기산업, 탄소융복합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가구 제조업 등 | 1,066천㎡ / 293천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070-8895-7696 |
| | 고아제2 농공단지 |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 일원 | 통신장비, 전기장비, 운송장비, 식료품, 섬유,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비금속가공 등 | 165천㎡ / 284천원/㎡ | 구미시청 054-480-6137 |

다양한 투파 인센티브 제공

-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조례 등에 따라 재정자금 지원
- 국내기업 및 도내기업 입지시설 자금 지원
- 수도권기업 이전, 지방 신·중설기업 재정자금 지원
- 외국인 투자지역 조세감면 및 임대료 감면

대구시·경북도 정보공개 취지 역행...시민 알권리 침해

행안부, 2023년 정보공개 종합 평가결과 전격 발표 성주군만 유일한 '최우수' 대구시·경북도 보통 평가 김천·고령군 미흡 낙제점 우리복지연합 성명 발표 행정·예산 낭비 우려 지적

운영을 위해 익산시민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만족도 조사"를 했다. 지난 1년간 정보공개 청구 데이터를 자체 분석했다. 그 결과, 토지·주택, 토양오염·정화, 신규 기업 음식점 현황 등의 청구 수요가 두드러짐을 확인했다.

시행, 올해에는 총 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평가 내용은 △사전적 정보공개 △원문정보 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관리 및 운영의 총 4개 분야 12개 지표로 실시, 각 기관 유형별 평가순위를 기준으로 4개 등급을 부여했다. 최우수(20%), 우수(30%), 보통(50%) 등급을 부여하되 60점 미만은 미흡 등급이다.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전체 평균점수는 87.4점으로 나타났다. 2022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시, 0.4점 향상된 점수이다.

국평균 20.4%, 우수 30.4%(전국평균 30%), 보통 58.7%(전국평균 47.3%), 미흡 8.7%(전국평균 2.4%)로 전국평균과 상당한 차이를 드러냈다.

17개 광역시·도는 최하위 '미흡' 등급이 없어 대구시와 경북도는 실질적으로 가장 낮은 '보통'을 받았다.

대구시는 '2022년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으나 하락했고, 경북도는 동일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평가에서 전체 최우수 공공기관이 112개임에도 대구·경북에서는 성주군만 이름을 올려 대구시와 경북도 및 산하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 수준이 대단히 낮고 급속히 하락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복지연합은 대구시의 경우 홍준표 시장 들어와 행정정보공개를 두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있어 '보통' 등급조차도 의문스러운 정도"라고 했다.

이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크게 추락시키고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점수로 최우수등급을 받았다.

경기도 평택시, 경상북도 김천시, 강원도 홍천군, 전라남도 함평군, 경상북도 고령군, 울산광역시 중구, 경기교통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영월군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등 13개 기관이 60점 미만으로 미흡등급을 받았다.

이 중 강원도 홍천군, 경기교통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등 7개 기관은 2년 이상 미흡등급을 받은 바 있다.

기관유형별로는 준정부기관이 95.4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기초 군은 79.0점으로 정보공개제도 운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평가기관을 대상으로 결과 설명회를 개최, 이번 평가의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기관별 분석보고서를 제공하여 미흡사항을 파악,



Oh! 오~소! So! 대구·경북! Daegu·Gyeongbuk



행정안전부가 전국 550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발표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 대구경북의 성적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평가결과 성주군 1곳만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기관은 초라한 성적을 받은 셈이다.

대구·경북 지자체 초라한 성적

평가에서 △최우수 성주군 △우수 대구교육청·서구청·수성구·중구·영천시·달성군·예천군·의성군·청송군·칠곡군 △보통 대구시·경북도·경북교육청·남구·달서구·동구·북구·군위군·봉화군·영덕군·영양군·울릉군·울진군 △미흡 고령군이다.

반면 익산시는 청구인 친화적 정보공개제도

수요분석 결과를 토대로 익산시 누리집 내 "자유 청구한 정보 및 사전정보공개 항목"을 현행화해, 익산시민의 궁금증을 적극 해소했다.

대구경북 지자체와는 너무 대조적인 면을 보였다.

충북교육청도 누구든지 편리하게 기관 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관 누리집에 "즐거찾는 정보보기" 메뉴를 구성·운영 중이다.

누리집 검색어 및 조회수, 정보공개 청구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국민 관심 정보를 도출하고, 별도의 정보공개 청구 없이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사전에 능동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사실상 정보공개에 있어 좋은 사례로 꼽히고 있다.

행안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고강조했다.

복지연합은 대구시 정보공개 둘러싼 잦은 갈등 등으로 '보통'으로 추락, 정보공개 취지 역행을 넘어 시민 알권리 침해와 행정·예산 낭비 우려한다고 꼬집었다.

대구·경북 공공기관은 2023년 행안부 평가에서 '최우수' 1개, '우수' 14개, '보통' 27개, '미흡' 4개였다. 2022년 평가에는 '최우수' 8개, '우수' 13개, '보통' 24개, '미흡' 1개와 비교해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행안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사전정보 정보공개, 문서 원문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처리, 고객 관리 등 4개 분야, 12개 지표로 평가됐다.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등 4개 등급으로 선정했다.

대구·경북 46개 공공기관은 최우수 2.2%(전

복지연합은 대구시와 경북도 및 공공기관들은 많은 정보를 충실하게 원문 그대로 공개할 것과 비공개를 낱발, 행정력과 시민의 세금 낭비를 막을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행안부 정보공개 국무회의서 공개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평가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서 공개했다.

행안부는 2023년 평가에서 정보공개에 대한 기관들의 적극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가점 지표를 축소하고, 감점 지표를 확대한 바 있다.

기관별 평가등급을 살펴보면, 최우수 112개, 우수 165개, 보통 260개, 미흡 13개 기관이다.

법제처, 경기도, 충청북도교육청, 한국승강기 안전공단, 경기관광공사 등 112개 기관이 높은

자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유형별 평균점수가 가장 낮은 기초 군에 대해서는 시·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독려하고, 권역별 정보공개 교육을 한다.

우수기관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미흡기관 13곳은 정보공개 운영실태 개선을 권고하고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모든 기관의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또는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앞으로 국민께서 관심이 많은 정보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공개하는 한편, 국민의 시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도전하는 청년

활기찬 노후

꿈을 키우는 아이

행복한 가정

과격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경산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용' 쓴다

도내최초 외상대금 회수하지 못한
관내 중소기업의 부실화 예방하고
경영 안전망 매출채권 보험료지원



경산시가 2024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용' 쓴다

경산은 젊은 인구가 많은 도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올해 디지털산업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임당 유니콘파크 건설과 "경산 전역을 철도로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경산시의 새해 사자성어는 '유지경성'입니다. '의지가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는 뜻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올해의 목표다.

경산시는 지난 해 디지털산업 인재를 키우는 임당 유니콘파크 공사를 시작했다.

대학도시로 10만 명의 젊은 인구가 있는 경산에 비수도권 최대 디지털산업 벤처창업밸리를 조성한다.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첨단 산업으로 바꾸는데 힘을 모은다.

조시장은 "한강 이남의 최고 ICT산업 도시 경산, 임당 유니콘파크를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적인 ICT 허브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경산 대입자구를 비롯해 인구가 늘면서 대구와 경산을 잇는 교통망 확충도 역점 사업이다.

대구도시철도 1,2호선 경산 순환선 구축을 국가철도망계획에 넣는 것은 물론 대구 시지와 경산을 연결하는 도로 확장도 추진한다.

울 연말 도시철도 1호선이 하양까지 연장돼 경산의 교통지도가 바뀐다.

경산시는 도시철도 1,2호선 순환, 거기에서 지식산업지구까지 도시철도가 연장되게 국가철도망계획에 잘 반영되도록 준비한다.

2024 중소기업 지원 시책 로드맵 마련

경산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산시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4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벤처·창업기업 육성, 기술·경영·마케팅 지원, 기업 문화분위기 조성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영자금난 해소를 위한 정책자금을 확대 지원한다.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1011억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자보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산지역 내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등 11개 업종을 포함하고 벤처기업 등 경북도 중점육성기업은 업종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5천만원(우대 최대 4억원)의 용자를 지원하고 1년 가저 약정상환한다.

이자액 2%(우대 3%)를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혜택도 있다.

매달 1~10일까지(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 또는 시청 중소기업 센터(810-5148)를 방문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시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복경산 중소기업 특별자금지원으로 담보력이 부족해 대출받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경산시와 대구은행이 보증지원 5억원씩 총 10억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출연금의 15배인 150억원 규모로 용자 지원한다.

보증 한도는 기업당 3억원 이내, 만기 1년을 조건으로 대구은행은 우대금리 적용, 신용보증기금은 3년간 보증 비율을 우대하고 보증료를 최초 1년간 0.3%p 차감해 주며 문의 사항은 신용보증기금 경산지점으로 (810-0911)하면 된다.

경영 안전망을 촘촘히 한다

경북 도내 최초로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관내 중소기업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경영 안전망을 넓히고자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한다.

보험료는 구매기업의 신용등급, 결제 기간 등에 따라 보험에 가입된 매출채권금액의 최저 0.1% ~ 최대 5%까지 차등 적용되며, 10%는 신용보증기금이 선할인한다.

경산시는 기업당 최대 2억원 한도로 보험료의 20%를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대구신용보증센터 또는 신용보증기금 영업점(경산, 수성, 대구지점 등)으로 전화(1588-



6565) 또는 방문 상담해 지원받을 수 있다.

벤처·창업기업 육성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벤처·창업기업 집중 육성을 위해 경북테크노파크, 경일대, 영남대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해 입주기업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출원, 홍보영상물 제작, 국내외 박람회 참가 등 마케팅 지원을 통해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기업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해 우수한 디자인을 보유하고도 자금력이 취약해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시제품 개발지원 △브랜드 개발 △시금형제작 △디자인 애로사항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부가가치 창출에 도움을 준다.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중

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연간 운반비 3000만원 이상의 관내 중소기업이며 국내 유통 시 발생한 물류비의 10%(최대 500만원)를 지원한다.

접수는 경북도 경제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박람회 부스 임차료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홍보, 판로개척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에 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으로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 부스 임차료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수요자 중심 기업으로 발굴·해소

기업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도 활발하다.

분기별로 이달의 기업을 선정하여 경산을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 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기업지원 정책설명회 이후 각 참여기관의 접수민원 중 타 기관과 협조해 처리해야 하는 복합민원 등을 함께 해결한다.

결과를 공유해 효과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과 지속적인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고자 15개 기업지원기관과 기업지원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경산시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에도 기관별 다양한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을 제공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새해에는 기업하기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신경은 기자

ASF 발생... 김광열 영덕군수 확산 원천봉쇄 특명

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500여마리 긴급 살처분 조치

경북에서 처음으로 영덕군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양돈농가에서는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만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긴급 대책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력한 초기대응"이라며, "인적·물적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최고단계의 대응이 이뤄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원천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16일 영덕군에 있는 양돈농장에서 돼지 폐사 등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한 결과 양성축(12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하고, 외부인·가축·차량·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역학 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500여 마리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한다. 때문에 영덕군은 초비상이다.

군은 즉각적으로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을 나서고 있다.

지난 15일 축산면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의심되는 돼지 12마리가 경북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조사 결과 16일 오후 6시를 기해 최종 양성판정을 받음에 따라 즉시 긴급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지역을 폐쇄하고 일대 소독



김광열 영덕군수가 17일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에 들어갔다. 같은 날 살처분을 위한 현지조사를 거친 후 19일 오후 9시까지 해당 양돈농가에서 사육하는 482마리 전수를 랜덤파방 방식으로 살처분한다.

군은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대응해 양성판정 즉시 방역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다음날 오전 9시 김광열 영덕군수가 주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초기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지역에 거점소독소와 소독차량을 운영하고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소독과 방역에 집중하는

한편, 해당 지역과 연결된 교통망에 대한 이동을 제한하는 등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살처분이 이뤄진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해 전염과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질병 발생 농장 인근에 대한 정밀 임상 검사와 주 1회 임상예찰을 시행해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한다.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은 지난해 9월 25일 강원 화천군에서 발생한 이후 3개월여 만이자 올해 들어 처음이다.

2019년 9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한 이후 양돈농장에서 모두 39건이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기 17건, 인천 5건, 강원 16건이었다.

그외 지역 확산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포항과 영천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지난 9월 의성군 야생 멧돼지에서 확인되는 등 확산 우려가 지속됐다.

중수본은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자원을 동원해 영덕군 일대 양돈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있다. 16일 오후 8시부터 18일 오후 8시까지 48시간 동안 대구와 경북 지역 양돈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 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표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 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시, "이것만은 반드시 바뀔시다"...

공무원 근무 혁신 4대 과제 전격 추진 인사철 딱돌리기 사용 눈치주기 자제



대구시는 17일 '공무원 근무 혁신 4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낡은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우수한 인력의 이탈을 막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자는 취지다. 근무 혁신 4대 과제의 첫 번째는 '인사철 딱돌리기' 자제다. 인사철이 되면 전출자의 부서에 전 직원들이 방문 때를 돌리는 문화가 있다. 주로 근무시간 중 이뤄져 업무 공백을 초래할 뿐 아니라, 방문 일정 조율, 딱 구입 등의 부담을 가중시켜 불합

리한 관행 중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하지만 올해 대규모 정기인사가 있었으나 전 직원이 부서를 방문해 딱을 돌리는 관행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개인적 친분에 따라 축하 선물 등은 소소히 유지되고 있지만 부서장이 주도하는 의례적 방문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대구시는 전했다.

두 번째는 '연가 사용 눈치주기' 자제다. 공무원은 '휴가', '육아시간', '유연근무' 등 다양한 복무제도를 개인 여건에 따라 유연하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조직 내 '눈치보기' 문화로 인해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

대구시는 이런 관행을 깨기 위해 개인의 복무 사항에 대해 부서장 대면결재 없이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

시는 '계획 없는 회식'을 가급적 피하고, '비상 연락망 전 직원 공지'도 자제하는 분위기다. 흥준표 대구시장은 "조직 내부의 낡은 관행을 타파해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수성구 공무원노조 수성의회에 뽑혔다

수성구의회 비공식 자료 요청 너무 많아... 정보공개 청구

공무원 노조 대구지역본부 수성구지부가 구의회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공무원 노조와 의회 측이 서로를 향해 '갑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대구 수성구와 수성구의회에 따르면 이달 초 수성구 공무원 노조가 의회에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수성구로부터 요청해 가져간 모든 자료를 달라"며 정보공개를 청

구했다. 공문을 받고 자료를 의회에 넘긴 부서에는 "의회로 전달된 자료를 모두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의 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요구한 자료와 비공식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비교하려는 것이다.

이런 일은 지난해 공무원이 구의원에게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카트에 두꺼운 책을 가득 실어 옮기는 장면을 공무원 노조가 목격하면서 일어났다.

공무원 노조가 의회에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구의원은 "직원에게 자료를 복사해 달라고 하면

업무량이 더 많을 것 같아 관련 책을 통째로 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성구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나간 자료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성구의회 관계자는 "노조가 도리어 의회에 갑질을 하는 상황이다. 지자체의 행정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아 자료를 요청한 것뿐인데, 이를 빌미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의회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조미경 기자

"지자체 보조금 '떡튀' 법인 전국 33곳..."

김상훈의원, 미납액 50억 넘어 국민 '혈세' 부당하게 '사유화'



부정한 수법으로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타내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되돌려주지 않은 법인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3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액은 53억 원이 넘는 규모다. 1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이 17개 시·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3년 11

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 원으로 집계됐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곳으로,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시가 20곳, 42억 3410만 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부산시 7곳(6억 3022만 원), 광주시 3곳(5억 1658만 원) 등의 순이었다. 전북과 인천은 각각 1곳(1099만 원), 2곳(1053만 원)으로 나타났다. 33개 법인 중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폐업한 법인은 23곳으로, 전체 미납액 중 폐업 법인의 미납액 비중이 85.3%(45억 8730만 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본인(법인)의 부정이나 지급 요건 미달로 인한 반환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국민 혈세를 부당하게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반환금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환수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은행, DGB biz SKYPASS 카드 출시

대한항공 마일리지 적립 DGB biz SKYPASS 카드 출시

DGB대구은행이 기업 해외출장 증가 추세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 적립 신용카드 'DGB biz SKYPASS 카드'를 출시했다. 'DGB biz SKYPASS 카드'는 전용 이용실적 조건과 적립 한도 제한 없이 카드 이용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 또는 법인 크레딧을 적립할 수 있는 기업고객 전용 신용카드다. 짙은 블루 계열의 컬러가 묵직한 느낌을 주는 카드 디자인은 DGB대구은행을 상징하는 푸른색 계열로 신뢰감을 표현했다. 전년도 출시된 'DGB 스카이패스 카드 v2'와 이어지는 캐리어 모티프로 여행과 비행기가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세련된 느낌을 주고자 했다.

마일리지 적립형과 법인크레딧 적립형으로 출시되는데 기명 법인카드 사용을 통해 개인 SKYPASS 계정에 마일리지 적립되는 적립형과 법인등록번호 기반으로 적립되는 법인 크레딧 적립으로 구분된다. '마일리지 적립형'은 개인사업자 회원, 소기업 법인회원에게 국내 가맹점 이용 금액 1500원당 1마일리지, 해외 가맹점 이용 금액 1500원당 2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소기업을 제외한 '법인 지정카드 회원'에게는 국내외 해외 가맹점 이용 금액 3000원당 1마일리지가 적립되며 공통적으로 여행자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인 크레딧 적립형'은 법인 공용카드 회원에게 국내외 해외 가맹점 이용금액 3000원당 1법인 크레딧을 적립해준다. 여행자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적립된 법인 크레딧은 법인소속 임직원들의



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등급 구매에 이용 가능하다. 연회비는 마일리지 적립형과 법인크레딧형 모두 1만 원이다. 국내전용과 국내외겸용 동일하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기업 해외출장 증가 추세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 적립 및 여행자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을 기획해 선보이게 되었으며 개인상품과 기업상품 간 라인업 구축으로 다양한 고객층의 니즈 충족을 하고자 한다"는 배경을 설명하면서 "다양한 사용처에 따라 편의를 주는 DGB대구은행 카드 상품으로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미경 기자

군위군,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19일까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안전교육

군위군은 영농을 준비하는 고령농민들을 돕기 위해 영농부산물 잔가지 파쇄지원단이 필요한 농가들을 새달 29일까지 모집한다.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현장에 찾아가 영농부산물을 파쇄해주는 지원단을 운영한다. 15~19일까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안전

교육 및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파쇄지원단은 다가오는 5월까지 연계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영농부산물 파쇄는 잔가지를 토양퇴비로 활용하여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및 병해충 저감에 기여하고, 자원순환에 실천할 수 있다. 영농부산물 파쇄지원 대상은 고령층(75세 이상)과 취약계층 농가에 우선배정된다. 과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읍면 농업인상담소 및 농업기술센터 작물환경팀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용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안전교육과 미세먼지 저감 교육을 병행, 농업인들의 미세먼지 저감의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친환경 영농실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 작물환경팀 및 농업인상담소에 문의하면 된다.

박재성 기자

경주시 전국 첫 영유아ADHD 치료특화도시

선별정밀검사 1억여원 지원 정밀검사비 학부모 부담경감

보건복지부 승인 전국 최초 '영유아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특화도시' 경주가 올해부터 ADHD 선별검사비 뿐만 아니라 정밀검사비도 지원한다. 경주에 주민등록을 둔 0-7세 영유아에 대해

ADHD 1인당 4만원의 선별검사비와 선별검사자 중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1인당 10만원의 정밀검사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해는 1461명의 영유아에게 ADHD 선별검사비 5844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800명을 예상으로 선별검사비 7200만원뿐만 아니라 400명을 예상으로 정밀검사비 4000만원 등 총 1억1200만 원을 지원한다.

경주는 전국 최초로 2022년 9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행동발달 선별검사비 지원 등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선진화된 영유아 ADHD 치료 특화건강도시를 조성했다.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체계적인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수행기관으로 한빛아동병원을 공모 선정했다. 한수원(주)을 비롯해 경주시사회복지협

회, 경주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특화모델을 구축했다. 수행기관은 심리평가, 발달검사, 부모훈련, 언어치료 등 조기선별검사와 어린이집, 유치원, 기관, 시설 등과 네트워크 구축과 부모·교사교육 등 ADHD 치료 거점으로 역할을 담당한다. 협력기관단체 중 한수원(주)은 수행기관(병원) 공간조성 지원을, 경주시사회복지협회는 민·관 협력 컨트롤 타워 역할을, 경주교육

지원청은 유치원, 학부모 등 다양한 계층에 제도안내 및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주낙영 시장은 "영유아 ADHD 증후군은 조기발견 및 예방이 매우 중요하며, 선별·정밀검사비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지속적인 양육 친화적 환경개선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용찬 기자



영천시여성단체협의회는 17일 스타컨벤션웨딩 연회장에서 '2024년 영천여성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영천 여성과 함께 하는 '비룡승운 영천'

2024 영천여성 신년교례회 개최 동부동, 비룡승운 통장결집다져

영천시여성단체협의회는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17일 스타컨벤션웨딩 연회장에서 '2024년 영천여성 신년교례회'를 열어 희망찬 새해 출발을 위한 도약의 자리를 마련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여성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라며 "신년에도 새로운 희망이 꽃피는 영천 만들기에 여성 지도자 여러분이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고 했다. '영천여성 신년교례회'는 여성단체와 함께 희망을 담은 새해 덕담을 나누는 자리로 최기문 영천시장, 이만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행사는 각 단체별 신년인사를 시작으로 주요 내빈들의 축하인사, 장학금 기탁(200만원)과 이웃돕기 성금(50만원) 전달, 새해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시루떡 절단 및 축배 순으로 진행됐다. 신말자 회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지난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다양한 양성평등 활동과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2024년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여성들이 단합된 마음으로 역할을 한 데 모자"고 전했다. 같은날 동부동도 갑진년 '비룡승운'을 위한 통장결집을 다졌다. 동부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통장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갑진년 새해 첫 통장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신임 통장 임명장 수여, 신규 직원 소개, 시정 홍보 사항 공유, 자체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갑진년 동부동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기로 협의했다. 강신애 동부동 통장협의회장은 "새해에도 건승하기를 바라며, 어려운 여건에서도 솔선수범하는 통장님들과 직원분들께 모두 감사하고, 동부동 통장협의회도 동부동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합심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동훈 동부동장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며 시정 홍보에 앞장서는 통장님들의 노고에 감사. 2024년 갑진년 새해는 비룡승운의 기운으로 더욱더 화합하는 동부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도의회 "서민경제·지역경기 회복 집중"

중앙정부 권한 지방 대폭이양 지역실정 맞는 정책 적극추진

경북도의회가 2024년을 지방시대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으로 보고 서민경제와 지역 경기 회복에 집중한다. 경북도와 함께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시켜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균형발전과 생존 걱정 없는 지방을 만드는 데 역량을 모은다. 도의회는 올해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 지정과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줄어든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경북의 당면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해결을 위해 합리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의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배한철 의장은 "진정한 리더십은 소통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때 발휘된다"며 "경기 회복과 서민이 활짝 웃을 수 있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 의회 내부는 물론 외부와의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도민이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1년 동안 총 7회의 회기를 운영, 조례안 203건을 비롯해 26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총 7회(21명)에 걸친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21회)을 통해 현안에 대해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도민의 눈이 돼 572건을 지적했다. 지난 1년간 조례안 203건 가운데 76%인 156건을 의원발의로 추진, 도민의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광역의회에서는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다. 기초의회까지 포함해도 1등급은 4개에 불과하다. 광역·기초의회 종합청렴도는 68.5점, 광역·시·도 종합청렴도는 78.6점인 것을 고려하면 경북도의회가 받은 83.6점은 낮은 점수가 아니다. 김성용 기자



의성군, 치매 조기검진 실시 60세 이상 무료 연중 시행

의성군은 관내 어르신들의 치매 조기발견 및 중증 치매로의 진행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의성군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치매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되며, 조기에 발견, 적절한 치료할 경우 완치 또는 중증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 개선이 가능하다.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비용을 경감할 수 있어, 조기검진은 매우 중요하다. 의성군은 인지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신경심리검사, 치매임상평가(치매척도검사) 등의 2차 진단검사와 치매 원인 규명을 위해 진단의학검사, 뇌영상촬영 등 3차 감별검사를 협약병원으로 연계 실시한다. 검진비용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군에서 무료로 지원한다. 지금까지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추정인구의 77%인 2,222명의 치매환자가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돼 치매치료관리비·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쉼터 등을 통한 돌봄 등 지속적으로 집중관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의성군 치매추정인구는 2904명(치매유병률 10.24%)이다. 치매환자의 가족에게도 치매안심센터 내 가족교실, 힐링프로그램 등을 통해 적극적 교류와 휴식을 제공하고 돌봄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박재성 기자

칠곡군, 노인일자리사업 일취월장

지난해보다 400명 증가 노인일자리사업 2400명 103억 투입 확대 추진...

칠곡군은 오는 18일까지 2024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사업설명회와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군은 올해 노인일자리 참여인원을 24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00여명 늘었다. 예산액도 76억원에서 103억으로 27억원 증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다. 사업단은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

익활동형(15개사업, 1845명) 사회복지시설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7개사업, 368명) 수익을 창출하는 시장형(8개사업, 184명)으로 운영하게 된다. 교육은 노인일자리 활동 시작에 참여자들에게 근무자 수칙, 안전사고 등에 대한 예방교육과 동절기 한파 건강관리 등으로 교육을 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올해는 공익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이 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소득 창출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일자리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미경 기자

지난해 대구·경북 가장 더웠다

연강수량은 평년보다 409.3mm 더 내려 3위

지난해 대구와 경북의 평균기온이 1973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구지방기상청이 발표한 '대구·경북 2023년 연 기후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와 경북의 평균기온은 13.7도로 평년(12.6도)보다 1.1도 높았다. 종전 1위인 2019년(13.5도)과 비교했을 땐 0.2도 높았다. 북태평양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한국 동쪽에서 고기압성 흐름이 발달한 가운데 남풍계열의 따뜻한 바람이 자주 불어 기온이 높은 날이 많았다. 지난해 12달 중 8개 달에서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다. 3월(10도)과 9월(22.2도)의 경우 각각 평년보다 3.6도, 2.1도 높아 연평균기온 상승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연 강수량은 1557.3mm로 평년(1038.4mm)

-1275.0mm) 대비 135.3%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2003년(1813.3mm)과 1998년(1557.4mm)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많았다. 강수량은 많은 달과 적은 달 간의 차이가 컸다. 5~9월에 강수가 집중됐고, 12월에는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도 했다. 정체전선이 발달한 장마철(6월25일~7월26일) 강수량 560mm를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비가 내렸다. 지난해 황사 일수는 13일로 평년(5.1일)보다 7.9일 많았다. 봄철 중국 북동부지방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고 기온이 높은 가운데 모래 먼지가 북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대한민국으로 유입되며 대구·경북에도 황사가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지난해 평균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장마철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관측 이래 처음으로 남북을 관통한 태풍 등으로 피해가 컸다"며 "이상기후 감시를 더 강화해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태용 기자

꿈나무육성

제10회 대구광역시일보배 전국아마추어골프대회

출인원 300만원 상당 백화점상품권
 ※첫 출인원 선수에 한함(천마·화랑 코스 각각 시상)

2024 GOLF

대구광역시일보

2월 26일 월요일
 경주신라컨트리클럽

참가자 전원
 기념품 증정
 행운상 푸짐

일반부 스트로크

메달리스트 남·여 트로피 백화점 상품권(100만원 상당)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프로자격증 수여(250만원 상당)

주최 주관 (주)대구광역시일보사
 후원 경북도, 경북교육청, 경주시
 협찬 ATPGA(아시아투어프로골프협회)

***시상내역**

□학생부(스트로크 방식 ※남·여 통합)
 ●초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중등부 1·2·3 각 장학금 지급

□일반부
 -신페리오
 ●남자 우승 트로피·풀세트
 ●여자 우승 트로피·풀세트
 ●남자 준우승 트로피·아이언세트
 ●여자 준우승 트로피·아이언세트
 ●남·여 3위 트로피·드라이버
 ●롱기스트 남 트로피·드라이버
 ●롱기스트 여 트로피·드라이버
 ●니어리스트 남·여 트로피·퍼터
 ●이글상, 최다 버디, 파, 보기
 더블파 각 상품 지급

참가규모 88팀(학생부 포함 천마·화랑 코스)

접수기간 2023년 11월 1일~2024년 1월 30일 (입금자 우선)

2024년 2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동시 티오프

2부 시상식 및 유명 연예인 공연

◆행사 장소 : 경주더케이 호텔

- 참가부문 및 자격: 전국 초·중학생 및 남·여 아마추어
- 일반부 참가비: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포함)
- 학생부 참가비: 27만원(그린피, 카트, 저녁만찬 학부모 포함)
- 참가비 입금계좌: 대구은행 508-11-147821-4
예금주: 김영숙
- 접수기간: 2024년 1월 31일까지 선착순 마감(참가신청입금 후 환불 주)
- 참가문의: 대구광역시일보 사업국 1600-5458
담당 010-4473-4473

자세한 내용은 대구광역시일보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선수등록 확인 관계로 9시 30분까지 골프장 도착

